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 교류 프로그램

No. 27

2022. 11.09. ~ 12.13.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본 사업을 통해 해외 북한 연구자들과
국내 북한 전문가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그룹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펠로우십 프로그램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문화된 학술 프로그램으로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들을 초빙한 특별 강연, 남북 분단 현장 방문 및 문화체험, 세미나, 전담/지도 교수제 등을 통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기존 학술 프로그램과 더불어 타 기관 및 학회 연계 학술행사 등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학술 활동 및 대외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펠로우 중간 연구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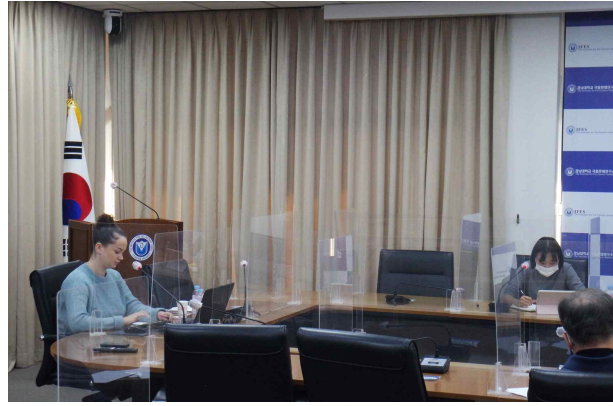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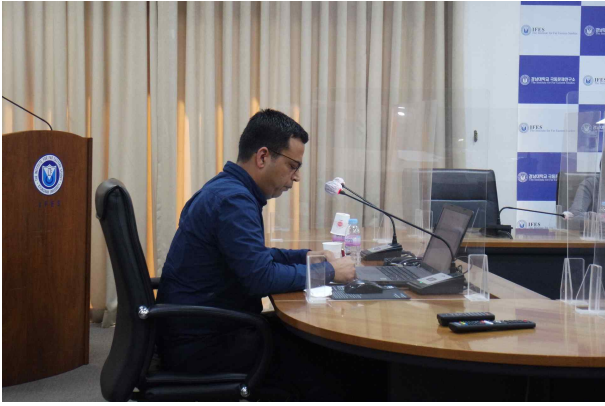
일 시: 2022년 11월 9일 (수) 14:00~15:00

장 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참 석 자: 펠로우, 사업책임자, 소내 교수진, 연구소 실무진 등 (총 10인)

주요내용: 펠로우들의 연구에 대해 중간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니시노 준야(Nishino Junya) 펠로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니시노 준야 펠로우는 대북방위 및 억제력을 넘어 한일 양국이 보다 넓은 비전으로 바라본다면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펠로우 최종 연구발표회



일 시: 2022년 11월 17일 (목) 14:00~16:00

장 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참 석 자: 펠로우, 사업책임자, 연구소 실무진, 통역사 등 (총 11인)

주요내용: 펠로우들의 연구에 대해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듀베이 허만트(Dubey Hemant)와 마농 프루덤(Manon Prud'homme) 펠로우는 각각 “Political Culture of Korea: A Fundamental Basis for North-South Unification”과 ““고난의 행군” 이후 평양의 도시개발과 부동산시장 형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펠로우 주임교수 및 소내 교수들은 두 펠로우의 발표에 대해 중간 보고서와 비교하며 열띤 토론을 하였다.

펠로우 수료식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 14:00~14:30

장 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참 석 자: 펠로우, 사업책임자, 연구소 실무진 등 (총 10인)

주요내용: 6개월 간의 연구 기간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듀베이 허만트(Dubey Hemant)와 마농 프루덤(Manon Prud'homme) 펠로우의 수료식이 마련되었다. 듀베이 허만트와 마농 프루덤 펠로우는 2022년 6월부터 “Political Culture of Korea: A Fundamental Basis for North-South Unification”과 ““고난의 행군” 이후 평양의 도시개발과 부동산시장 형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며 현장체험,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성실히 참여하였다. 두 펠로우의 연구 결과 요약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소재 국책기관, 싱크탱크, 해외 현지 연구자를 대상으로 남북관계와 북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촉진 방안 등에 대한 연구 등을 공모·지원하여 각 나라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외 연구자들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참신한 대안 및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토론회, 공동세미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드로윌슨센터(WWICS) 연구결과발표 세미나



일 시: 2022년 11월 8일 (화) 22:00~24:00

장 소: 온라인 ZOOM(동시통역)

주 제: 붕괴와 혼란 방지: 원자력 안전과 에너지 개발을 통한 남북교류의 신뢰 구축

주요내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통일부 후원 ‘해외 북한·통일 정책·학술 연구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 미국 우드로윌슨센터(WWICS)의 연구결과 발표회 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제1세션은 ‘한반도의 원자력 에너지와 원자력 안전’(사회: Kayla Orta WWICS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프로그램 담당)을 주제로 임만성(KAIST) 교수와 김호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촉규제원, Francesca Giovannini(하버드케네디스쿨 원자관리프로젝트) 전무이사의 발표로 시작하였다. 발표에서 임만성 교수는 북한과의 원자력 안전과 에너지 개발을 고려하는 ‘기술 외교(Technology diplomacy)’ 채택을 주장하였다. 제2세션은 ‘핵비확산과 미래에 주는 함의’(사회: Su Mi Terry WWICS 아시아프로그램 소장)로 Siegfried S. Hecker(텍사스A&M대학교) 교수와 Jeffrey Lewis(MIIS 동아시아비확산프로젝트)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북한과의 원자력 협력: 바람직한가? 가능한가?’로 발표주제를 맡은 Hecker 교수는 북한의 일방적 합의 위반과 핵보유국의 위치에 오르면 원자력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소내·외 전문가들이 북한 핵비확산과 에너지자원으로서의 개발에 대한 연구 증진을 위해 토론을 맡으며 활발한 논의로 공감대 형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갔다. 우드로윌슨센터(WWICS) 연구 결과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보다 내실있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 Fellow별 주요 연구활동 사항

- 1) 11월 15일(화) 마농 프루덤(Manon Prud'homme) 펠로우가 한국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 ICG멀티컴플렉스 5층 소강당에서 통일부 주관 2022 DMZ 그린평화지대화 국제청년포럼(DMZ Global Forum for Young Leaders 2022)에서 '청년의 눈으로 본 DMZ 그린평화지대화' 1세션에 참석하여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본 DMZ의 미래(The Future of the DMZ Painted by the Younger Generation)"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11월 24일(목) "Urban Studi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온라인 세미나(ZOOM)에서 "사회주의 이후의 도시 평양? "고난의 행군" 이후 도시개발과 사회변화(Pyongyang, a post-socialist city? Urban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since the "Arduous March")"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2) 11월 15일(화) 엠 파벨(Em Pavel) 펠로우 수료자가 2022 DMZ 그린평화지대화 국제청년포럼(DMZ Global Forum for Young Leaders 2022) 학술회의 '청년의 눈으로 본 DMZ 그린평화지대화' 1세션에 참석하여 "DMZ 그린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협력"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 3) 11월 15일(화) 피터 워드(Robert Peter Ward) 펠로우 수료자가 2022 DMZ 그린평화지대화 국제청년포럼(DMZ Global Forum for Young Leaders 2022) 학술회의 '미래세대가 꿈꾸는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청년의 역할' 2세션에서 토론으로 참석하였다.